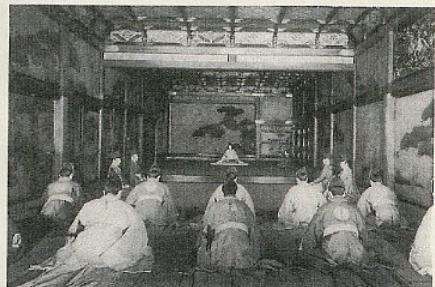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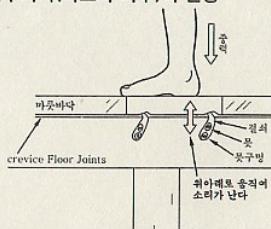
# 니조성 니노마루 궁전 관람안내도

## ●오히로마(大廣間) 방 "이치노마"

1867년(慶應3년) 10월, 15대 쇼군(將軍) 요시노부(慶喜)가 어려운 주민들에 헌드라이아, 대정봉환(大政奉還)을 발표하고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의 막을 내린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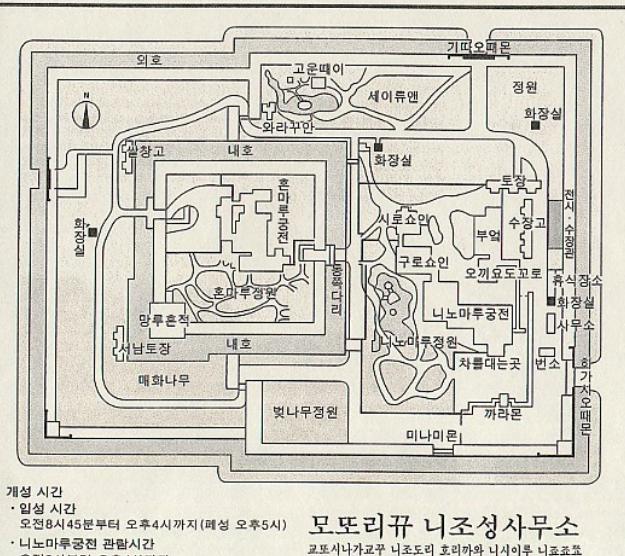


우구이수바리(꾀꼬리 마루)의 설명



### ●우구이수바리(꾀꼬리 마루)

마루판을 밟으면 꺽쇠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꺽쇠와 못의 마찰음이 마치 휘파람세 소리처럼 나도록 되어있다.  
※ 당시 이 원리를 이용, 의부에서 적이 침입할 경우 이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용도로 써어졌다.



## 모포리큐 니조성 사무소

교토시나카교구 니조도리 호리카와 니시이루 니호초  
전화 교도 (075) 841 - 0096 - 0910  
팩시밀리 (075) 802 - 6181  
홈페이지 <http://www.city.kyoto.jp/bunshi/nijojo/>

개성 시간  
· 입성 시간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폐성 오후 5시)

· 니노마루궁전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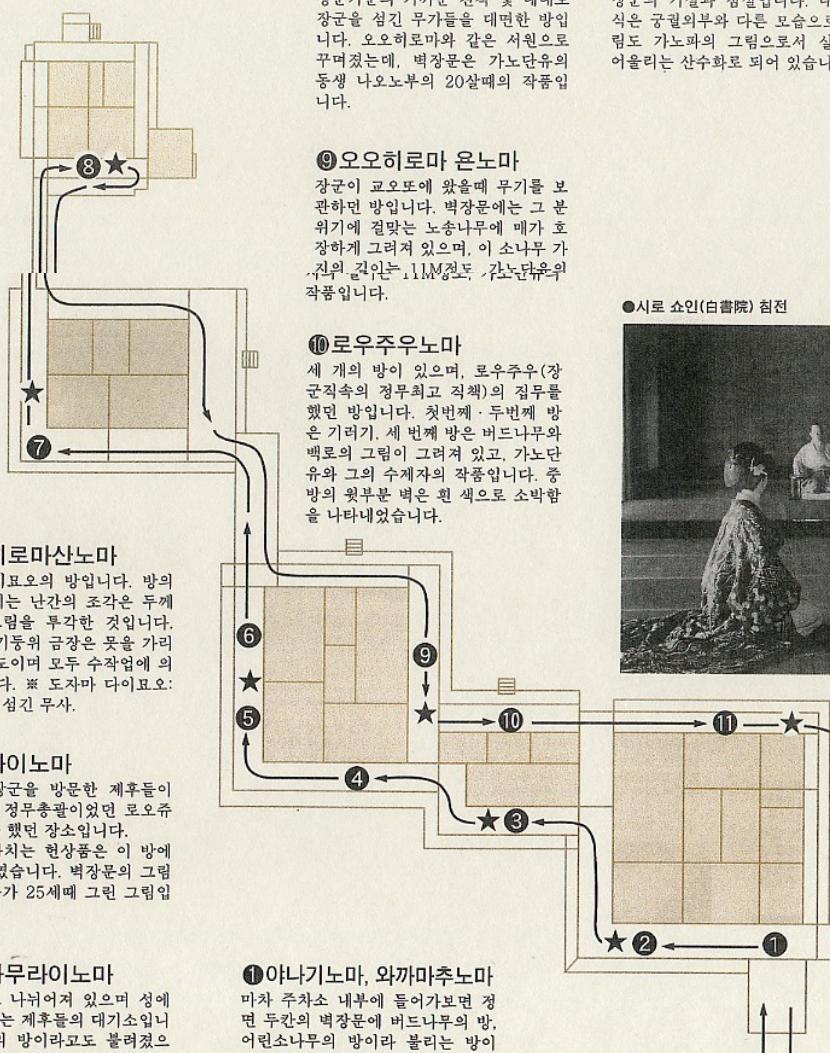
12월 26일부터 1월 4일 까지 7월, 8월, 12월 및 1월의 매주 흐요일(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 ⑤오히로마 이치노마, 니노마

책상, 도꼬노마, 서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의 구조는 모모야마 시대의 무기풍서원 제작방법입니다. 벽화는 그 당시 일본 최고의 화가 가노단유의 작품입니다. 이 방에서 1867년 10월 15대 장군 요시노부가 도쿠가와 막부 265년의 막을 내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 ⑥오히로마 이치노마노덴조

장군이 지방무기들과 대면한 방으로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전은, 삼박이, 들판국계, 꺾어울려, 전격천정으로 첫 번째 방은 중간부분에서 한번 더 꺾어 올려진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⑦구로 쇼인

장군가문의 거운 운명 친척 및 대대로 장군을 섬긴 무가들을 대면한 방입니다. 오히로마와 같은 서원으로 꾸며졌는데, 벽장문은 가노단유의 동생 나오노부의 20살때의 작품입니다.

### ⑧시로 쇼인

장군의 거실과 침실입니다. 내부장식은 궁궐의 부와 다른 모습으로, 그림도 가노파의 그림으로서 실내에 어울리는 산수화로 되어 있습니다.

### ●오히로마 방 "온노마" 서쪽 벽 그림 (송옹도) 부분



### ⑨오히로마 온노마

장군이 교오포에 있을 때 무기를 보관하던 방입니다. 벽장문에는 그 분 위기에 걸맞는 노송나무에 배가 호강하게 그려져 있으며, 이 소나무 가진의 길이는 11M정도, 가노단유의 작품입니다.

### ●시로 쇼인(白書院) 침전



### ⑩로우주우노마

세 개의 방이 있으며, 로우주우(장군직속의 정무최고 직책)의 짐무를 했던 방입니다. 첫 번째·두 번째 방은 기리기. 세 번째 방은 버드나무와 백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가노단유와 그의 수제자의 작품입니다. 중방의 윗부분 벽은 흰색으로 소박함을 나타내었습니다.

### ⑪초꾸시노마

도자마·다이묘오의 방입니다. 방의 정면에 보이는 난간의 조각은 두께 35cm의 그림을 투각한 것입니다. 방 주변의 기둥위 금강은 물을 가리기 위한 용도이며 모두 수작업에 의해 한 것입니다. \* 도자마·다이묘오: 도쿠가와를 섬긴 무사.

### ③시끼다이노마

도쿠가와 장군을 방문한 제후들이 장군직속의 정무총괄이었던 로오쥬우와 인사를 했던 장소입니다. 장군에게 바치는 현상품은 이 방에서 전달하였습니다. 벽장문의 그림은 가노단유가 25세 때 그린 그림입니다.

### ②도오사무라이노마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성에 문안인사 오는 제후들의 대기소입니다. 호랑이의 방이라고도 불려졌으며, 호랑이와 표범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나, 당시 이와 같은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호피만을 보고 그렸던 상상화로서, 가노파, 화가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①야나기노마, 와까마추노마

마차 주차소 내부에 들어가보면 정면 두칸의 벽장문에 버드나무의 방, 어린소나무의 방이라 불리는 방이 있으며, 무사의 위법을 감찰하던 직책을 가진 자가 니조성 방문자의 접수를 보면 뜻입니다.

궁정 안에서는 촬영금지